

## 금속노조 백년대계 교육연수원 건립 공사 본격 시작한다

### 48차 대의원대회, 연수원 건립 추가 비용 마련 승인... “교육연수원은 금속노동자 의식이자 기반”

금속노조가 5월 20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4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금속노조 청소년 수련원·교육연수원 건립 기금 사용과 기금 대책 마련 방안을 승인했다. 노조는 지난 128차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육연수원 건립 기금 부족분 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건립 기금 사용과 기금대책 마련 방안 건은 재석 대의원 369명 중 238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노조는 48차 임시대대 결정에 따라 지난 44차 임대에서 승인한 87억 1,786만 5,022원에 부족한 공사비 79억 4,980만 2,235원을 더한 166억 6,766만 7,257원으로 교육연수원을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대대에서 추가한 공사비 79억 4,980만 2,235원 중 50억 원은 쟁의적립금에서 전용한다. 나머지 29억 4,980만 2,235원은 차입해 사용한다. 차입한 30여억 원은 2020년 1월부터 특수목적 기금으로 8년에 걸쳐 상환한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오늘 논의할 교육연수원은 그저 건물이나 공간이 아니다. 금속노동자의 ‘의식’ 이고 ‘기반’ 이다. 노동운동의 이념과 의식이 없는 노조는 패



배와 어용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라고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대의원 동지들이 지혜를 모아 금속노동자의 학교인 교육연수원 건립에 나타난 장애물을 걷어 달라” 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교육연수원 공사비용이 오른 이유에 관해 “처음 승인받은 건립비용 96억 원은 연수원 설계가 완성되기 전인 2016년 물가를 근거로 추정한 공사비이다” 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초기 건립비용에 물가상승과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연수원 설계가 구체화하면서 다양한 현장 요구를 반영하고 물가상승에 따라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올라 불가피하게 전체 공사비가 상승했다” 라고 덧붙였다.

공사비 증가 요인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강당 확대로 15억 원, 숙소동 확대에 5억 7천만 원, 지부와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기자재 비용 18억 원이 늘었

다. 이외에 착공 기간이 지연되면서 자재비 7억 원, 인건비 10억 원, 경비 3억 원 등 공사 원가 20억 원과 부가가치세 2억 원이 추가됐다.

나경원 노조 교육실장은 이날 대대에서 교육연수원 설립 배경과 목적 등을 설명하며 “교육연수원은 산별노조 발전을 위한 토대”

임을 강조했다.

대의원들은 두 시간여에 걸쳐 연수원 건립과 운영, 추가 공사비 등에 관해 질의했고, 조합의 답변을 듣고, 토론을 벌였다. 557번 하부영 대의원은 “이미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오늘 대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집행하면서 보강해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418번 김용화 대의원은 “학습과 토론을 통해 노동자 계급의식과 연대정신을 체득한 간부를 양성하지 못하면, 노동현장은 자판기노조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최소 몇십 년을 내다보는 노조 교육연수원 건립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다” 라고 강조했다.

대의원들은 찬성과 반대 발언을 들은 뒤 표결을 통해 기금 사용과 기금 대책 마련 방안을 승인했다. 재석 392명에 찬성 238표, 찬성률 60.7%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 “조선산업·지역·노동자 모두 손해 보는 비상식 인수합병”

20일, 현중 법인분할, 대우조선 인수 문제점 국회토론회·경남 조선소 연합 공기업화, 다시 공개입찰 등 제안

기업재무와 조선산업 전문가들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대우조선 인수는 한국 조선산업 생태계를 망칠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조선업종노조연대,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추혜선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 김종훈 민주당 국회의원의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으로 5월 20일 국회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의 문제점과 대우조선 인수가 조선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이 지역경제와 조선산업의 미래보다 정몽준 재벌 일가의 이익과 지배력 강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안에 따르면 신설법인인 현대중공업은 부채를 떠안는 제작회사로 전략해 꺾이기만 남고, 정몽준 일가가 지배하는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이익이 넘어가며, 울산에서 지주사 본사를 이전해 울산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올해 하반기 예정인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심사에 맞춰 원정투쟁을 준비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시도에 맞서겠다”라고 밝혔다.

## 불공정하고 자의적인 현대중공업 분할 계획

송덕용 회계사는 “현대중공업은 주주총



안 안전에서 현대중공업은 분할해도 본사를 울산에 남기겠다고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내용물은 한국조선해양에 담아서 서울로 옮길 계획이다”라며 “한국조선해양은 유동자산 중 가장 중요한 현금을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보다 더 많이 가져갈 계획을 내놨다. 현금이 필요 없는 회사가 필요 이상 현금을 가져가는 셈이다”라고 꼬집었다.

송덕용 회계사는 “한국조선해양과 최상위 지배회사인 현대중공업 지주는 이익을 직접 가져갈 계획이다. 현중 계열사 사례를 보면 매출액 기준 5%를 브랜드 사용료로 받아갈 수도 있다”라며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의 영업이익이 떨어져 노동자의 성과급과 하청노동자의 고용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재원 노동연구원장은 “이번 인수합병이 EU와 일본 등의 결합심사를 통과하려면 생산물량을 줄여 점유율을 줄여야 한다. 결국, 다른 나라 조선사들을 위해 한국 조선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격이 된다”라고 우려했다.

안재원 연구원장은 “국내 조선산업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상남도가 대우조선 포함해 경남의 조선소들을 묶어서 지역 공기업화해 현대중공업과 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 방안이 어려우면 비공개 밀실 입찰이 아닌 공개입찰을 통해 현대중공업과 경쟁할 수 있는 회사가 대우조선을 인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 노동조합 힘 빼는 불합리한 인수합병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대우조선 인수를 계기로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자본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현장을 주무르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한국지엠이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의 단체협약 승계를 거부하는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형균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은 “현대중공업은 분할 과정에서 단협 승계에 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30년 쌓은 노사 간의 계약관계를 무시하겠다는 셈이다”라며 “회사가 단협 승계를 무기로 단협을 고치자고 얘기하면 노조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 노사관계가 극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5월 22일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 본사 앞에서 열고, 30일 주주총회 당일 1박 2일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노조는 국제 반대여론을 조직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 “차별과 고용불안 없애려면 금속노조 가입하자”

대우조선 원청-하청 공동집회 열어... “더 망설일 이유 없다. 단단히 뭉쳐 저항하자”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사내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 대우조선지회가 대우조선 현장의 하청 노동자를 금속노조로 조직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우조선에서 일하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 1천여 명이 5월 16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 민주광장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원·하청 공동 중식 집회’를 열었다. 앞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2천여 명이 5월 10일 성과급을 차별하는 대우조선 항의집회를 열고 본관에 진입해 사장 면담 투쟁을 벌였다.

하청노동자들은 16일 중식집회에서 단결해 차별에 맞서 싸우자는 목소리를 터트렸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집회 현장에서 노조 가입원서를 돌리자 많은 하청노동자

가 가입원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등 노조에 가입하자는 목소리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우조선이 하청노동자들의 기세에 눌려 5월 15일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직영 대비 85.6%의 비율을 적용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사내하청지회는 대우조선이 적용 근거를 밝히지 않고 성과급을 차별지급했다고 비판했다.

김동성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삼만 오천 명이던 하청노동자가 일만 오천 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모래알이다.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 단단하게 뭉쳐 저항하기 위해 하청노조에 가입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상기 대우조선지회장은 원하청 연대에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

했다.

하청노동자가 금속노조 깃발 아래 모인다면, 노조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하청노동자들이 노예의 사슬을 끊고 억압과 굴종의 세월을 떨쳐내면 금속노조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며 “전국의 금속노조 동지들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기꺼이 달려와 함께 할 준비가 됐다”라고 약속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 포스코 등 무노조를 강요하는 사업장에서 노조를 세우고 키웠다”라며 “성과급 문제보다 더 큰 미래와 생존을 위해 금속노조로 단결하자. 승리하는 조직을 만들자”라고 호소했다.

## 울산시민도 현대중공업 분할 반대한다

현대중공업지부, 법인분할 저지 투쟁 출정식 열어...16일부터 매일 네 시간 파업, 22일 상경투쟁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법인분할을 안전으로 다룰 회사의 주주총회 추진시도를 중단하라며 네 시간 파업을 벌이고 현장과 거리에서 투쟁을 벌였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5월 16일 울산 현대중공업 현장에서 ‘법인분할 저지 투쟁 출정식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3,000여 명의 조합원이 일손을 놓고 참가했다.

박근태 현대중공업 지부장은 대회사에서 “5월 31일 주주총회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 울산시

민 82%가 현중 물적 분할과 본사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여론은 우리 편이다”라며 “더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갈 곳이 없다. 뒤돌아보지 말고 힘차게 전진해 반드시 승리하자”라고 조합원들을 독려했다.

조합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현장을 돌며 원청과 하청노동자 모두 파업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설득하고 조직했다. 지부는 17시에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연 민주노총 울산본부 결의대회에 참가해 울산시민과 함께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반대와

현대중공업 본사 이전 반대 구호를 외쳤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5월 16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매일 네 시간씩 전 조합원 파업을 벌인다. 지부는 5월 22일 8시간 파업을 벌이고 상경투쟁에 나선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주주총회를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